

# 백제 사찰, 고대 동아시아 한류 핵심

### 세계유산 등재 검토 세미나서 고구려·신라·일본·중국과 비교고찰

백제 사찰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해 세계유산을 등재하기 위한 자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은 3월 29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컨퍼런스룸에서 '백제 사찰과 주변국 사찰과의 비교 연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당시 사찰 건축을 비롯한 불교문화가 주변국과의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뤘다.

노기환 미륵사지유물전시관 학예연구사는 첫 발표인 '백제사찰의 특징과 보편적 가치'에서 미륵사지를 예로 들며 "건물과 가람 규모 등이 기하학적인 유기성을 나타내는 미륵사는 동아시아 사찰건축의 완벽성을 보이는 사례"라고 말했다.

노 학예연구사는 이어 "미륵사지 석탑 또한 조형적 특징을 잘 표현한 세계에서 유일한 목탑"이라며 "후대에 한국의 독자적인 석탑 중심 탑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병희 충북대 교수는 '백제사찰과 고구려사찰 비교'에서 "남쪽지방은 일찍부터 동진(東晉)으로부터 불교를 전래받아 1탑 1금당식 가람이 유행했다"며 "6세기 군수리사지와 7세기 미륵사지를 보면 가람배치가 3원식 구성됐는데 이는 수나라 대 사리전래와 불탑 조성을 계기로 새로운 문화

적 교류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당시 고구려의 1탑 3금당을 비교해보아도 고구려의 영향 또한 받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양정석 수원대 교수는 '백제사찰과 신라사찰의 비교'에서 "5세기 후반 고구려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고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 이후 백제와 신라 관계는 긴밀해졌으며 이는 건축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백제건축, 동진·수·고구려 영향받아 독립식 3원 구조 등 독창적 변용 전개 신라 황룡사, 일본 비조사 등 건축전래 불교문화 전파하며 교류협력 활발 진행

양 교수는 "5세기 후반 신라 기와에서 한성 백제기와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황룡사 건축도 백제 기술이 사용됐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황룡사 창건가람은 3원식 3금당 배치로 이와 유사한 가람배치를 갖는 백제 군수리사 또 미륵사 등을 보아 백제 사찰 건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현숙 원광대 교수는 '백제사찰과 중국



백제 미륵사는 동진·수·고구려의 건축기술과 백제의 독창적 미학이 함께 어우러진 당대 건축문화의 백미였다.

사찰의 비교'에서 "백제는 중국으로 불교 문화를 수용해 중국과의 유사성이 적지 않지만 단순히 중국문화를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변용해 백제적 특징을 창출했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중국에서 쌍탑, 다탑 가람이 출현함에도 백제에서는 지속적으로 일탑 가람이 유지됐다. 중국과 달리 삼원에 각각 탑과 불전을 하나씩 건립한 독립적 구조는 독창적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소 교수는 이어 "백제는 남조 사찰문화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남조사지가 기록만 전할 뿐 전무한 가운데 백제사찰은 역으로 남조의 사찰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조원장 한일문화유산연구원 조사단장은 '백제사찰과 일본사찰의 비교'를 통해 "588년 일본 비조사에 기술자 집단을 파견한 백제는 적극적으로 외부 문물을 수입해 자체적인 불교문화를 완성했으며 이를 주변국에 전하면서 대외교섭을 이어갔다"며 "백제 불교사원의 전개는 문화전파를 통한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병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원의 '문화교류상 백제사찰의 위치'와 배병선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장의 '백제사원유적의 보존관리 계획 및 활용'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학술 · 문화재소식

### 선리연구원 학술상 우수상에 조준호 박사



조준호 박사



윌호 스님



황정일 박사



김광식 박사

'제7회 선리연구원학술상' 우수상에 조준호 박사가 선정됐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4월 1일 제7회 선리연구원학술상 우수상에 조준호 박사(한국외대 남아시아연구소 전임 연구원), 학술상에 황정일 박사(동국대 강사), 윌호 스님, 김광식 박사(동국대 불교학술원)를 각각 선정했다.

우수상의 조준호 박사는 '선과 염불의 관계-염불선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 현대 한국불교 주요 수행법과 교의의 연관성을 살피고 고위배사나 등과도 어떤 접점이 있는지

살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7년 처음 시행된 선리연구원 학술상은 선학과 교학 및 불교사를 비롯한 응용불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소장학자를 지원하고, 한국불교와 불교학의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지금까지 21명의 학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매년 2월에 연구계획서를 공모하여 6월 초에 시상식과 발표회를 갖는다. 우수상 1명에게 500만원, 학술상 3명에게는 각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禪文化研究>에 게재된다. 노덕현 기자

### 불교학술원, 서울대 규장각 소장 불교문헌 조사 나서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 ABC(불교기독교문화유산 아카이브)사업단은 4월 3일 서울대 한국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규장각에 소장된 불교문헌에 대해 체계적 서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동국대 ABC사업단 집성팀에 의해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올 4월부터 내년 2월까

지 1차 조사가 이뤄지며 규장각 소장자료 중 불교문헌과 비불교문헌에 포함된 불교 문헌등을 포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또, 규장각 홈페이지에 서비스되고 있는 서지사항중 잘못된 사항이나 불교문헌의 유일본(唯一本) 및 선본(善本)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도올 초청 탄허100주년 기념 특별 강연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4월 15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탄허 스님의 화엄세계 - 20세기 한국불교의 정맥과 그 고뇌'를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특별강연회에는 도올 김용옥 선생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2층 서예실

에서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국 근스님 글씨 - 월정사 안암과 탄허' 특별전시회도 열린다.

이밖에 월정사는 5월 3~7일 탁났한 스님의 '지유·행복·상생' 명상수행교를 운영한다. (033)339-6621

노덕현 기자

### 봉은사 보우학술논문 수상자에 손성필 등 5명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가 주최하는 '보우학술논문' 수상자에 손성필·김은영·박선영·박종수·이명호 등 5명이 선정됐다.

조계종 교육원장상에는 손성필 씨의 <명종대 불교정책과 보우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봉은사 주지상에는 김은영 씨의 <허응당 보우의 교육사상 연구>, 박선영 씨의 <16세기 불교회화의 부흥에 있어 보우대사의 영향 연구>, 박종수 씨의 <조선 전기 종교지형에 대한 보우의 인식>, 이명호 씨의 <현대 한국불교의 현실 분석과 보우대사의 일정론에 기초한 대안

제시>가 각각 선정됐다. 최고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에는 해당자를 내지 못했다.

조계종 교육원장상에는 300만 원, 봉은사 주지상에는 200만 원 상금이 주어진다. 선정된 논문은 10월 2일 학술논문 발표회에서 발표된다.

보우학술논문 공모는 한국불교의 증흥 조 허응당 보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고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 2월 28일까지 접수된 분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 (02)3218-4812 노덕현 기자

# 47년 만에 공개된 석가탑 내부... 사리1과, 장엄구 수습

### 문화재청, 4월 2일 석가탑 탑신부 해체하며 봉안품 수습

국보 21호인 불국사 석가탑(3층석탑)이 47년 만에 속살을 드러냈다.

석가탑 해체 수리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인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석조문화재보존정비사업단은 4월 2일 현장에서 2층 옥개석(屋蓋石: 지붕처럼 덮은 돌)을 해체하고 그 아래 몸돌인 탑신(塔身)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공간인 사리공(舍利孔)을 들어냈다.

이 자리에는 변영섭 문화재청장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김상준 경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석가탑의 사리공(가로·세로 각각 41cm, 깊이 19cm) 노출은 1966년 이후 처음이다.

불국사 삼층석탑은 2012년 9월부터 해체를 시작한 2012년 12월 상륜부(相輪部, 탑 위에 층층이 쌓은 바퀴 모양의 둥근 형태) 해체가 완료된 상태다. 현재 탑신부(塔

身部) 해체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날 해체에서는 1966년 해체 수리 완료 때 다시 봉안한 사리장엄구 수습이 진행됐다.

1966년 석탑 해체수리 시에는 사리와 함께 금동제외함(金銅製外盒)과 은제내함(銀製內盒),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물인 '무구

### 불국사, 내년 3월까지 사리 친견법회 사리장엄구 감식 후 재봉안 여부 결정

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중수문서(重修文書) 등이 발견돼 그 중 28건이 국보 제126호로 지정됐다. 유리지 사리병에는 46과의 사리만 존재했고, 사리가 1과씩 들어있는 은제사리호와 목제사리호가 각각 발견돼 석가탑에서 발견된 사리는 모두 48과다. 은제 사리함에 들어 있던 1과

가 이번에도 수습됐으며 목제 사리함은 열리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국보로 지정된 사리장엄구 일괄은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에 봉안 중이다.

옥개석이 분리되자 그 아래 탑 몸돌 정중앙에서는 사각형으로 판 사리공이 노출됐고 그 안에서는 사리장엄구가 보자기에 덮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들어낸 사리장엄구는 곧바로 불국사 주지실로 옮겨져 사리를 친견하는 의식이 진행됐다. 사리 친견에는 성타 스님과 변 청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수습된 사리장엄구는 대부분 복제품(複製品)이지만 은제사리호(銀製舍利壺)와 목제사리병(木製舍利瓶)은 1966년 수리 당시 재봉안(再奉安)된 유물이다.

수습된 사리는 석탑에 재봉안하기 전까지 불국사 무설전(無說殿)에 보관된다.

불국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무설전에서 '진신사리 친견법회 임제식'을 거행했



조심스럽게 사리공 덮개석을 들어올리는 모습.

다. 임제식은 반야심경과 불국사승가대학장 덕민 스님의 축원, 배병선 단장의 경과 보고, 헌화,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과 변영섭 문화재청장의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불국사는 2014년 3월 말까지 석가탑 사리친견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사리장엄구는 수습 후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조사를 거쳐 재봉안 여부가 결정된다. 석탑 복원은 2014년 6월 완료된다. 노덕현 기자

#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영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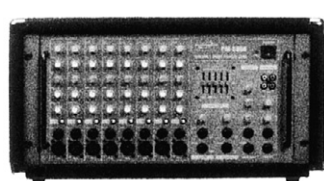
## 천 광 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앰프



스테레오 앰프



•高音質 무선마이크

### 신제품!! 고급 앰프케이스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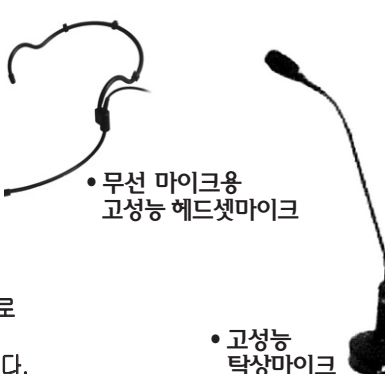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일반마이크 aV-620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고성능 탁상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